

[Case Study] 한국투자증권 EKP, 모바일 오피스

## 언제 어디서나 'KISS', Smart Work 실현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자본시장을 선도하며 기업금융과 투신업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투자증권은 보다 스마트한 업무 처리와 영업지원 강화를 위해 엔터프라이즈 지식 포탈 시스템인 'KISS(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Space)'와 모바일 오피스 환경인 'mobile-KISS'를 구축했다. 기존 업무 시스템과 외부 정보와의 원활한 연계에 필수적인 확장성과 유연성, 운영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국IBM의 WebSphere Portal Server를 선택했다.

### Project Overview

- **도입 배경** | 분산된 업무 정보의 통합과 개인화된 맞춤 정보 제공, 각 영업점 별 실적 정보에 대한 실시간 관리 필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모바일 환경 구현 필요
- **선정 이유** | 기간계 시스템 및 외부 정보와의 연계에 필요한 확장성과 유연성 제공, 포틀릿 기반으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가능, Portlet Factory를 이용한 손쉬운 포틀릿 개발,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가능
- **도입 효과** | 통합된 업무 처리로 업무 시간 단축, 지점별 실시간 실적정보 관리를 통해 영업생산성 향상, 모바일 환경과의 연계로 업무 효율성 개선
- **도입 제품** | IBM WebSphere Portal Server

한국투자증권은 197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신탁회사인 **舊한투증권**과 1962년에 설립, 1982년에 동원그룹으로 편입된 **舊동원증권**이 2005년 합병하여 새롭게 태어난 증권회사이다.

부침이 심한 증권업계에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토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특히 증권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IB(Investment Bank)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생명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며 회사채 인수주선, 공모증자, 파생상품 등 IB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규모는 2009년 기준 12조 1,478억 원이며 자기자본은 2조 1,970억 원에 이른다. 현재 118개의 영업점과 4개의 현지법인, 2개의 현지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수익구조 다변화, 신성장 수익원 개발, 해외진출 선도 등의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Smart Work'를 핵심 모토로 전사 지식 포탈(EKP, Enterprise Knowledge Portal)과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현했다.

사내 공모를 통해 'KISS(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Space)'로 명명된 지식 포탈은 기존 업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종합 경제정보, 기사 리뷰, 리서치 정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투자증권은 내, 외부 정보의 원활한 연계에 필수적인 확장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한국IBM의 WebSphere Portal Server를 자사의 지식 포탈 인프라로 선택했다.

## Smart Work 실현 위해 EKP, 모바일 오피스 구축

한국투자증권은 10년 이상 사용 중이던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가 노후화되면서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렵고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과 이슈들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KMS의 재구축을 결정했다.

구축 당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메일, 전자결제와 같은 그룹웨어 기능과 영업관리 시스템 등의 내부 인프라를 쉽게 연계할 수 있는지, 또 외부의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연계하고 향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한지, 이에 더해 모바일로까지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요건을 반영하는 솔루션을 검토하면서, KMS 솔루션과 포탈 솔루션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할지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KMS의 경우 내부 인프라와의 연계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EP 솔루션을 도입하고 지식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EP 솔루션 도입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은 이 인프라가 사내 인트라넷의 관문 역할을 하고 사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성능,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등을 주요 검토 요건으로 삼아 강도높은 BMT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 IT전략기획부 김명수 차장은 “기간제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에서 IBM의 WebSphere Portal Server가 단연 우수한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포탈 시스템이라 안정성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WebSphere Portal Server의 전용 포틀릿 제작 환경인 Websphere Portlet Factory도 솔루션 도입 결정시에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 중 하나였다. Portlet Factory는 사용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포틀릿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 사용자 요구시마다 별도로 SI 업체에게 의뢰해 개발하던 프로세스가 Portlet Factory를 통해 내부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일정,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 WebSphere Portal Server로 업무 효율성과 영업 경쟁력 강화

한국투자증권의 'KISS'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되었다. 첫째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인 'My Portal'이다. 직원들마다 업무에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해 두면 여기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추출해 개인 포틀릿에 나타내준다. 여기에는 메일, 결제 등의 그룹웨어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기사나 리서치 정보 등의 다양한 외부 정보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위젯까지 모두 포함

된다. 직원들은 'My Portal'을 통해 원스탑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김명수 차장은 "포털 기반이라 개별 기능들을 손쉽게 구축, 관리할 수 있었다. 'My Portal'은 2,600여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스탑 업무 처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업무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영업 실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의 구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영업점 별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일종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점마다 실적 관리를 위해 수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분야다. 매일, 매시간 실적 일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ISS'에 이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실적 정보 확인과 검색이 편리해졌다. 김명수 차장은 "지점별로 실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종의 대시보드 형태로 화면을 구성했다. Knowledge Map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영업 정보와 외부 사이트를 설문 을 통해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바일 업무 환경의 지원이다. 'KISS'에서 제공하는 실적 정보는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동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obile-KISS로 명명된 모바일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실적 정보와 함께 공지, 이메일, 전자결재 등 업무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포함됐다.

### **아시아 최고 금융회사로의 성장 기반 마련**

한국투자증권은 'KISS' 구축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싱글사인 온을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는 원스탑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통해, 초기 시스템 구현시 염두에 두었던 스마트 워크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K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협업까지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업무 관리'를 통해 부서 내부, 혹은 외부 부서와의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키 기능까지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은 KISS를 통해 스마트한 지식 협업 체계, 모바일 기반의 업무 연속성 등을 실현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